



세계 환경의 날이란?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를 통해 제정된 기념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전 세계가 참여하고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은 28년 만에 공식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엔환경계획(UNEP)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립니다. 전 세계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날을 맞아 개인과 사회가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위한 실천】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탄소발자국을 줄입니다.	일회용 봉투 대신 대화용 장바구니를 이용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을 이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이용합니다.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괜찮을까?】

우리는 가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방법 중에서 음식과 관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① 수입 식품보다는 현지에서 자라는 농산물과 제철식품을 섭취합니다.	수입 식품들의 경우 배나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많은 양의 탄소를 발생시키고, 이 많은 양의 탄소는 곧 지구를 아프게 합니다.	
② 채소 섭취를 늘립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양의 땅과 물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무와 숲이 사라집니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약 10억 마리의 소가 주기적으로 똥을 내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를 더욱 심각하게 합니다.	
③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유엔환경계획에서 보고한 '음식물쓰레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10억 5,000만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보았을 때, 세계의 평균이 79kg인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95kg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는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되지 못하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하고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④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을 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및 간편 음식, 온라인 쇼핑 등의 비대면 쇼핑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1인이 연간 소비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무려 1,312개(19kg)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간편 음식과 배달 음식은 가공과 포장 등의 과정에서 많은 일회용품을 생산하게 합니다.	

자료출처 : 유엔환경계획(UNEP) - 기후위기 대응을 도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 서울환경연합 블로그(2024.03.11.)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환경부 카드뉴스(2025.05.22.)
 환경의 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교육부 공식 블로그(2020.06.04.)